

5·18 '3대 현안' 또 국회 문턱 못 넘나

망언 3인방 제명·역사왜곡처벌법 제정·진상규명조사위 구성
한국당 '몽니'에 3월 임시국회 해결 힘들 듯 ... 시·도민 '분통'

3월 임시국회가 폐회까지 10일도 남지 않았지만, 5·18 민주화운동 관련 3대 국회 현안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5·18 망언 국회의원 제명과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광주·전남 시도 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2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처음 가동한 3월 임시국회가 지난 11일 문을 열었지만, 선거제 개혁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절차)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각종 민생 법안 등이 여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다음달 5일 폐회됨에 따라 남은 기간은 열흘이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이날부터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서 또 한번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각종 법안과 국회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5·18 폄훼 발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 등 5·18 관련 3대 국회 현안도 이번 임시 국회에서 해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5·18 망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징계는 윤리특위 심사자문위원들 가운데 자유한국당 추천 3명의 위원이 공동 사퇴하면서 윤리특위 구성 자체가 되지 않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을 위한 관련법 제정은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평화민주당에서는 '역사 왜곡'과 '표현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관련법 통과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지난해 9월 여야 합의로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뒤늦은 위원 추천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2명의 자격 문제로 청와대가

재추천을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현재까지 위원회 구성이 요원한 상황이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5·18 관련 3대 현안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번 임시국회와 오는 4월 정기국회에서도 특별한 진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이 가운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라도 한국당이 위원들을 재추천하면 위원회 구성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이 다가오면서 자유한국당도 여론

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며 "지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5·18 관련 3대 현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해결돼 올해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은 어느 해와 달리 의미있게 치러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5월 단계를 비롯한 110개 지역 시민사회단체, 광주시·광주시의회·광주시교육청 등 기관과 6개 정당이 참여한 '5·18 역사왜곡처벌 광주문동본부'가 결성됐고, 지금까지 두 차례 시·도민대회가 열리는 등 '5·18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과 전두환 처벌'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해남~부산 최장 걷기여행길 '남파랑길'



해남~부산 1463km '남파랑길' 걸어볼까

명품 걷기여행길로 조성

콘텐츠 발굴해 2020년 개통

해남 땅끝마을에서 시작, 부산 오륙도로 이어지는 '남파랑길'이 명품 걷기여행길로 조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우리나라 둘레를 잇는 걷기 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의 하나로, 남해안 노선에 해당하는 남파랑길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남파랑길은 길이 1463km에 이르는 국내 최장거리 탐방로로, 지난 2016년에 개통한 부산 오륙도-강원 고성 간 770km를 잇는 '해파랑길'에 이은 두 번째 코리아둘레길 노선이다. 한려해상과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남해안의 해안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해안길과 숲길, 마을길, 도심길 등이 어우러져 걷기 여행의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90개 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남파랑길이란 이름은 지난해 8월 대국민 공모를 거쳐 정한 것으로, 남해의 지역성 '남쪽'과 쪽빛 바다의 중의성을 담았다. 구간별 특징을 고려해 ▲남도 순례길(장흥-강진-완도-해남) ▲남도 낭만길(여수-순천-보성-고흥) ▲섬진강꽃길(하동-광양) ▲한려길(고성-통영-거제-사천-남해) ▲한류길(부산-창원) 등 5가지로 나뉜다.

특히 17개 대표 구간을 추천, 남해안의 멋과 가치를 체험하고 걷기 여행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지역 대표 관광콘텐츠

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전남지역의 경우 ▲해남 90코스(미황사 천왕문-땅끝마을 13.9km) ▲완도 86-87 코스(남창정류소-해조류센터-청해포구 활영장 간 44.8km) ▲장흥 80코스(회진시외버스터미널-마리항 간 24.2km) ▲강진 83코스(구목리교 서쪽-도암농협 간 17.6km) ▲보성 63코스(부용교-팔영농협망주지소 간 21.7km) ▲고흥 66코스(영남면 간천버스정류장-남영마을 입구까지 11.2km) ▲여수 55코스(여수 해양공원-소호요트장 간 15.3km) ▲순천 61코스(와온삼거리-별랑화포 간 15.6km) ▲광양 48코스(하동송림-진월초교 간 13.9km) 등이 17개 대표 구간에 포함됐다.

문체부는 남파랑길 구간 중 인문·지리·문학·역사·종교 등 주제별로 걷기 여행길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상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남파랑길의 특색을 살려 '나만의 인생사진 명소 걷기', '길 위에서 만나는 내 인생의 인물', '남도 식도락 여행' 등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계속 발굴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남파랑길 안내 체계를 구축하고 주제별 걷기여행 등을 시범 운영한 뒤 오는 2020년 하반기 정식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걷기여행의 매력을 높일 다양한 걷기여행 콘텐츠를 개발하고 특색 있는 주제길을 관광 상품화할 뿐 아니라 자치단체 간 협업체를 구성, 상호 협력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 광주 수피아여고서 점화



25일 광주시 남구 수피아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 광주 점화식 학생 참가자들이 대형 태극기를 들고 민세운동 행렬에 앞장서고 있다. 이 행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지난 1일부터 4월 11일(임시정부 수립일)까지 진행되는 전국 순회 행사다. 이날 수피아여고에서는 김라리아 선생과 박애순 선생의 독립선언서 전담 재현극, 생존 애국지사 노동훈 선생의 만세삼창 등에 이어 동구 5·18민주광장까지 횃불 봉송이 펼쳐졌다. >관련기사 6면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에 'e스포츠' 상설경기장 들어선다

문체부, 60억 들여 조선대 해오름관에 1005석 규모

광주에 'e스포츠' (Electronic Sports) 상설경기장이 들어선다. e스포츠는 컴퓨터 및 네트워크, 각종 영상 장비 등을 이용해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로 지적·신체적 능력이 필요한 경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1곳당 60억 규모(국비 30억·지방비 30억)의 e스포츠 상

설경기장 구축 공모에 광주와 함께 부산, 대전 등 총 세 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8월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공모에 대비해 총 11곳의 후보지를 확보해 실사와 함께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선대 해오름관을 후보지로 확정했다. 해오름관은 1005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합계 160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영상조정실, 기자실, PC존(훈련장) 등을 한 건물에 구성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며 조선대는 이번 공모사업을 위해 해오름관을 10년간 무상 대여한다.

광주 e스포츠 상설경기장은 오는 4월 문체부와 협약 체결 후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돼 2020년 5월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광주시 신현대 문화산업과장은 "상설경기장에서는 학생과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각종 아마추어 대회가 열릴 예정이며, 지역에서 만들어진 게임 대회를 개최해 지역

게임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e스포츠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국 등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국제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 e스포츠 시장은 연평균 36%의 고속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14억 88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 e스포츠 결승전은 4만명이 관람했고, 전세계 5760만명이 TV중계를 시청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천년 전라도의 혼
임시정부와 항일 독립투쟁 ▶18면

KIA 타이거즈 전망대
임기영·윌랜드·김기훈 선발 출전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2019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4. 6. (Sat) ~ 5. 6. (Mon)
슬로시티청산도일원

주최: 완도군 주관: 청산도 슬로걷기축제추진위원회

보고, 먹고, 체험하는 행복한 완도여행

2019 완도 정보고 수산물 축제

2019. 5. 3(금)~5. 6(월) / 4일간
완도해변공원, 청해진유적지 일원

주최/주관: 정보고수산물축제추진위원회